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IV)

강 찬 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2.27 <附鐵橋丁亥秋答書> ~ 2.30 <又附與潘其祥年伯書>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北京대학 古籍部 소장 《日下題襟合集》¹⁾에 수록된 《洪湛軒尺牘》²⁾의 全文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역주 논문으로, 총 30信 중 제27신 <附鐵橋丁亥秋答書>에서 제30신 <又附與潘其祥年伯書>까지의 서찰 내용을 국내 연행 문헌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다시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이 네 통의 서찰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하면, 제27신 <附鐵橋丁亥秋答

*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부교수(fromshanghai@wku.ac.kr)

1) 북경대학도서관 청구번호: [LSB/2649]

청 乾隆 30년(1765) 12월에 조신의 湛軒 洪大容은 子弟軍官 신분으로 연경으로 향하는 사신 행렬에 참여했다가, 그 이듬해인 1766년 음력 2월 會試에 참가하기 위해 항주에서 상경한 嚴誠, 陸飛, 潘庭筠을 乾淨衝(지금의 북경 琉璃廠과 前門大街 일대)에서 우연히 만나 학문을 논하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깊은 친분을 쌓은 바 있다. 1767년 봄에 글 선생으로 초빙되어 복건 북주지역에 갔던 엄성이 역병에 걸려 고향인 항주로 돌아왔다가 1767년 11월 5일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의 고향 친구인 朱文藻(1735-1806)가 그동안 이들이 주고받은 서찰을 모아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日下題襟合集》이다.

2) 洪湛軒: 18세기 조선의 대표 실학자인 洪大容(1731-1783)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德保, 호는 湛軒 또는 弘之이다. 그는 저서로는 《湛軒燕記》, 《乙丙燕行錄》 등이 전한다.

書>는 1767년 봄에 중국 福建省 福州 지역에 갔다가 학질에 걸린 嚴誠³⁾이 1767년 9월 초하루에 쓴 장문의 서찰이다.⁴⁾ 이 글에서 엄성은 조선의 벗 홍대용을 향한 애뜻한 그리움과 안부, 학업에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토로하는 시름의 하소연 외에도 홍대용이 올바른 학문에 더욱 힘쓰기를 염원하는 진심 어린 당부 등 가슴 절절한 사연들을 무려 2,717자에 걸쳐 빼곡히 적어 내려가고 있다.

제28신 <書後附寄懷詩二首>는 오언 율시 2수의 형식으로 작성된 詩箋이다. 이 글에서 엄성은 홍대용의 편지를 일여 년 만에 전해 받은 기쁨과 이심전심 전해지는 돈독한 우애, 나이 마흔도 되지 않아 이미 병약해 버린 심신을 추스르고 스스로 학문에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80자의 詩語로 압축하여 적고 있다.

제29신 <又附與秋厔書>는 엄성이 1766년 음력 3월에 치러진 會試에 급제하여 북경에서 지내고 있던 潘庭筠⁵⁾에게 보낸 서찰이다. 이 안에는 엄성이 항주에 계신 반정균의 아버지 潘其祥을 통해 조선에서 보내온 편지를 전해 받고 이에 대한 답장을 쓰게 되었다는 편지글 작성의 전후 사정, 자신이 북건성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근황, 그리고 북경에서 살고 있던 반정균의 이종형인 徐光庭⁶⁾에게 편지를 맡겨 이를 다시 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척독집에 마지막으로 수록된 제30신 <又附與潘其祥年伯書>는 엄성이 반정균의 아버지 潘其祥에게 보낸 서찰이다. 이 글에는 1767년 윤칠월에 반기상이 전달해준 홍대용의 서찰을 받아보고 이에 대해 답장을 쓰게 되었다는 사연과 자신의 서찰을 북경으로 부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 嚴誠(1732-1767): 자는 立庵·力闇, 호는 鐵橋, 仁和(지금의 절강성 항주) 사람이다. 저서로 《鐵橋集》이 전한다.

4) 《古杭尺牘》에 수록된 原本 서찰에서는 “丁亥九月朔日, 書於福建福州使院”이라고 하였다.

5) 潘庭筠(1742-?): 자는 蘭公·蘭垞, 호는 德園, 錢塘(지금의 절강성 항주) 사람이다. 乾隆 34년(1769)에 正榜으로 합격하여 乾隆 36년(1771)에 內閣中書가 되었고, 乾隆43년(1778)에 進士가 되어 陝西道御史를 제수받았다. 저서로는 《稼書堂集》이 전한다.

6) 당시 북경에 거주하고 있던 반정균의 이종형인 徐光庭을 가리킨다. 서광정은 호가 朗亭, 자가 堯鑑으로, 항주와 조선 사이에서 오가는 편지를 중간에서 전달해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4통의 서찰 중 제28신 <書後附寄懷詩二首>은 홍대용의 《湛軒書外集》卷一の ‘與秋庫書’條에 <鐵橋臨終前一日寄詩>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3통의 서찰은 국내 문헌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홍대용의 교우 행적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실증적인 문헌자료가 된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까지 현대문으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다소 어려웠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홍대용과 엄성 두 사람 간의 교우 상황을 연구하는 데 다소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洪湛軒尺牘》原文 및 校釋

2.27 <附鐵橋丁亥秋答書>7)

2.27.1 去秋承惠書，卽于本年接閱，弟亦有寸楮布候，未審已得達否。頃奉手教，兼辱珍貺，欣慟恍惚，悸不自定。此書亦屬去年暮秋所發，至今秋始得快觀。萬里寄書，艱難乃爾，可勝惘然！比日想起居多慶，德業日新。訣別以來，每一念及，肝腸崩摧，相思之懷，彼此同之，不復鬮縷。⁸⁾ 弟無他過人處，自覺差遠于齷齪⁹⁾之流。湛軒不以爲不肖，而曲加獎借，殊增顏汗。“讀書將以學爲聖賢”，來書字字真切，使人若矇而瞭，若痿而起，謹當佩服，勿諉。但弟年來多病早衰，如吾湛軒所云‘心界煩亂，志慮衰颯’，大畧相似。自省工夫，進寸退尺，奈何奈何？因思此事，正須朋友夾持，氣志方不頹落，如弟胸中未嘗不壁立千仞。然獨學無徒，又疾俗而不免狗俗，泛泛悠悠，豪無把鼻，¹⁰⁾ 爲累于身心不少，湛軒何以教我哉？

7) 엄성이 건륭 32년(1767) 가을에 조선의 홍대용이 1766년에 보낸 편지를 복건성 福州에서 그 이듬해인 1767년 윤칠월에 받아보고 이에 대해 답하여 쓴 서찰이다. 이 글은 홍대용의 《湛軒書》에 미수록되어 있다.

8) 鬮縷: 완곡하게 하다,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다.

9) 齷齪: 품행이 비열함.

10) 把鼻: 근거,自信.

【역문】

지난가을에 보내신 서찰을 올해에 받아 보았습니다. 저도 안부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미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찰과 진귀한 선물을 받고, 펼쳐 펼듯이 기쁘고 황홀하여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번 편지도 지난해 늦가을에 발송하신 것인데, 올가을에서야 겨우 받아 기쁘게 읽어보았습니다. 만 리 먼 곳에서 편지 보내기가 이리도 어려우니 망연하기만 합니다. 매일 경사스러운 일 많으시고 덕업이 나날이 쌓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헤어진 이래로 매번 문득 생각이 나면 간장이 무너져 내리듯 하였습니다. 그리운 심정은 서로 마찬가지로이니 더는 세세하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은 없지만, 스스로 소인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담헌 대형께서는 어리석다 여기지 않으시고 극진하게 격려해주시니, 더욱이 얼굴에 땀이 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성현의 가르침을 이루도록 배워야 한다.”라고 하신 편지 안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실 되고 정성스러워, 마치 어두운 눈을 밝게 보게 하고 움츠린 몸을 일어서게 하니 삼가 존경스럽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는 올해 들어 병이 잦고 나이보다 일찍 쇠약해졌으니, 담헌 대형께서 “마음이 번뇌로 혼란하고, 의지가 쇠약하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스스로 공부해 온 것을 되돌아보니 얻은 것이 적고 잃은 것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생각해보니 바로 벗들과 같이 의지하여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가슴 속에 천 길의 위험한 곳에 벽을 치고 서 있다는 각오로 학문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독학을 하여 따르는 이도 없고, 또 세속을 질시하면서도 세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가로이 떠다니다보니 근간이 전혀 없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담헌 대형께서는 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2.27.2 “古今人品分六等”¹¹⁾ 極爲切當. 然鄙見以爲, 上達下達, 無中立之理,

11) 본 책독집에 수록된 24번째 서찰인 <書後另紙>에서 홍대용은 엄성에게 사람의 인품을 ‘聖人, 大賢, 君子, 善人, 俗人, 小人’의 여섯 부류로 나누어 언급한 바 있다. (拙稿, <북경

似不必立俗人一條. 第五位即爲小人, 第六位即改曰凶人, 凶人不常有, 而小人則滔滔皆是也. 同流合污, 避害趨利, 非小人而何? 貪鄙狗彘, 慘毒蛇蠱, 非凶人而何? 言小人則俗人已該其中, 而所謂善人者益可危矣. 蓋此六等, 乃條析言之. 其實天下祇君子小人兩途, 不入于此, 即入于彼. 善人望人聖¹²⁾, 雖有多少等級, 而自聖人以至善人, 得統名曰君子, 而外此則皆小人矣. 彼俗人者, 不君子不小人, 胡爲者邪? “爲學五種之弊”,¹³⁾ 讀之毛骨俱竦. 以弟自驗, 大約近所謂蠹魚一途, 可勝愧赧, 未識湛軒自顧居何等也.

【역문】

“고금의 사람 성품은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라고 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온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아래로 그 중간에 놓을 조항이 없으니, 속인(俗人)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놔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소인이 되어야 하고, 여섯 번째는 흉인(凶人)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흉인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소인(小人)은 큰물이 도도히 흐르듯 모두 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럽고 비열함이 개돼지와 같고 참독함이 뱀 전갈 같은 이들이 흉인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소인에 대해 말하자면, 속인이 이미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니 선인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더욱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여섯 등급은 조목별로 나누어 말한 것입니다만, 사실상 천하에는 단지 군자와 소인의 두 가지 갈래만 있어서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바로 저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인(善人)이 성인(聖人)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도 비록 몇몇 등급이 있겠지만, 성인에서 선인에까지 통칭하여 ‘군자’라고 하겠으니, 이 밖의 무리는 모두 소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 속인이란 무리

대 소장 《洪湛軒尺牘》原文 및 校譯(III) >, 《중국학논총》 68집, 2020, 295-296면 참조.)

12) 원문에는 ‘人聖’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聖人’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은 <書後另紙>에서 “凡此六等, 可惡者小人, 可悶者俗人, 可愛者善人, 可敬者君子, 可畏者大賢, 不可及者聖人.”이라고 하였다.

13) <書後另紙>에서 홍대용은 엄성에게 학자의 마음을 경계하여 ‘利心, 名心, 勝心, 伶俐, 恬雅의 다섯 부류로 나누어 언급한 바 있다. (拙稿,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原文 및 校譯(III) >, 《중국학논총》 68집, 2020, 295-298면 참조.)

는 군자도 아니고 소인도 아니니,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학문을 하는 데 다섯 종류의 폐단이 있다”라고 하신 대목을 읽노라니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일로써 가름해 보건대, 서책이나 가까이하며 성현의 도를 구하고자 하는 줌에 가깝다고 하겠으니 부끄럽고 무안합니다. 담헌 대형은 스스로 어느 등급에 속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27.3 湛軒謂弟無一言規責，以致貴鄉士友疑其玩侮，此未悉吾輩交情，妄相猜度，不足與辨。以弟觀湛軒，實無滲漏之處可貢其狂言者。惟覺湛軒持論，亦有過高之處。前在京師，蒙贈言有云，“最下者，著書以圖不朽。”夫古之聖賢，憂一時之不悟，立教以救一時，憂萬世之不明，著書以垂萬世，恐未可以爲最下也。或其病在‘圖不朽’三字邪？孔子曰，“疾沒世而名不稱焉。”¹⁴⁾ 三代¹⁵⁾而下，惟恐不好名，此非孔子之所謂名也？不知湛軒于世俗身後之名，竟能渾忘之否。此弟所不能無疑者也。

【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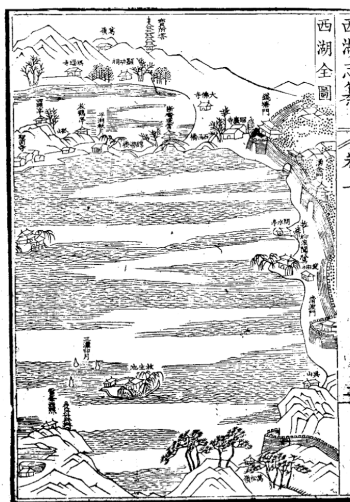
담헌 대형께서는 제가 대형을 지적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 벗들로부터 제가 조롱하여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우정도 잘 모른 채 함부로 추측한 것으로, 그들과 변론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제가 보건대, 담헌 대형은 실로 그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할 만한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담헌 대형의 지론을 생각해보니 지나치게 고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일전에 북경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나 책을 써서 오래 명성을 남기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옛 성현은 한 시대의 깨닫지 못함을 걱정하였기에 가르침을 세워 한 시대를 구제하였고, 만세의 깨닫지 못함을 걱정하였기에 책을 써서 만세에 전해 주었으니, 아마도 최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병폐가 불후의 명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의 ‘도불후’ 세 글자에 있는 것이겠지요? 공자께서 “죽을 때가

14) 《論語·衛靈公》 참조.

15) 三代: 堯, 舜, 禹의 3대.

지 이름이 불리지 못함을 근심한다.”라고 하셨으나, 삼대 이후로는 오로지 좋은 명성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했으니, 이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름(名)’이 아닙니다. 담헌 대형께서는 세속에서 죽은 후에 얻어지는 평판에 대해 혼연히 그 생각을 지울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2.27.4 西湖諸勝, 猝不易摹. 近年因聖主南巡,¹⁶⁾ 郡人刻有新志,¹⁷⁾ 圖繪極精, 卷帙少而梗槩悉備, 將來必當覓寄一部以供臥遊. 弟于富貴利達, 實自淡然. 然已七踏省闈,¹⁸⁾ 盖有不得已者. 前年乙酉赴試, 自誓此次不中, 決不再來, 實懼失意之後, 此心不能不動也. 既而倖竊科名,¹⁹⁾ 亦復非其所樂, 差喜得慰老親望而已. 去春會試不售, 胸中豪無芥蒂, 同輩皆歎以爲難, 此實非矯制其情, 不過看得此事甚淡耳. 策馬南歸之後, 家居半年, 今春福建督學公²⁰⁾



《西湖志纂》 권1의 <西湖全圖>

- 16) 청나라 乾隆은 건륭 16년(1751), 건륭 22년(1757), 건륭 27년(1762), 건륭 30년(1765), 건륭 45년(1780), 건륭 49년(1784) 등 총 6차례에 걸쳐 江南지역을 순시한 바 있다.
- 17) 향주 출신으로 翰林院掌院學士를 역임한 梁詩正(1697-1763)이 乾隆 17년(1752) 沈德潛과 합纂한 《西湖志纂》 17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건륭 20년(1755), 건륭 27년(1762) 등 몇 차례 더 간행되었던 것으로 조사되는데, 권1의 '名勝圖條' 아래로 <西湖全圖>, <聖因寺圖>, <聖因行宮圖> 등 향주 일대의 명승지를 매우 세밀하게 묘사한 여러 장의 그림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 18) 省闈: 元代 이후 각 省에서 주관하는 과거제도. 禮闈 또는 鄉闈라고도 한다.
- 19) 倖竊科名: 엄성이 을유년(1765)에 鄉薦된 일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嚴誠의 《嚴鐵橋全集·外集》의 <嚴先生小傳>에는 “乙酉領鄉薦, 丙戌(1766)試禮部不第.”라고 적혀 있다.
- 20) 督學: 학교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 이 시기에 福建督學을 역임한 인물은 王傑(1725-1805)이다. 그의 자는 偉人, 호는 惺園, 별호는 畏堂이고, 陝西 韓城廟後村 사람이다. 乾隆 26년(1761)에 과거를 보아 狀元이 된 후 40여 년 간 관직에 머물렀으며, 乾隆 29년(1764)에 福建督學이 되었다가 乾隆 32년(1767)에 翰林院侍讀을 제수받았다. 劉媯의 《日下題襟集》에서 “丁亥春, 赴閩. 是歲, 兄果館督閩學使王公署中, 公聞弟名, 欲令子師事之.”라고 하였다.(上海古籍出版社, 2014, 161면 참조.)

遠走書幣,²¹⁾ 延爲塾師, 弟本不耽違離親遠遊之戒, 正緣家嚴²²⁾ 謂“不肖! 閒居無事?”, 命之就道. 其地處東南海濱, 離家千七百里. 幸家書一月一寄, 差足放心, 歲暮亦卽裝旋里也. 筱飲·秋廬, 春正一別, 迄今不知息耗, 近聞秋廬于五月間又入京師矣. 想渠自有書能言其詳也.

【역문】

항주 서호(西湖)의 여러 절경을 갑자기 그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년에 황상께서 남쪽 지역을 순회하심에 이 지역 인사가 새로운 지방지를 간행하였는데, 그림이 매우 정밀하고 책의 권수가 적으면서도 개략적인 내용이 상세히 구비되어 있으니, 반드시 한 부를 구해 보내드려 대형이 누워서 서호의 여러 절경을 유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귀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로 저 자신도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곱 차례나 향시에 참여한 데에는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작년 을유(1765)해에 과거를 보러 가면서 스스로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면 결단코 다시 과거 보러 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는데, 사실은 실의에 빠져 이 마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윽고 요행히 추천으로 향시(鄉試)에 급제하였으나, 이 또한 더 이상 즐거워할 일이 아니었고 가까스로 연로하신 부친의 바람에 위안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지난해(1766)에 회시(會試)에서 낙방하였으나 가슴 속에 조금도 회한이 없었는데 동료들은 모두 힘들겠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다듬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낙방한 일을 매우 담담하게 보았던 것뿐입니다. 말을 채찍질하여 남녘땅으로 돌아온 후, 반년간 집안에서 지냈습니다. 을봄(1767)에는 복건성 학교를 관리 감독하시는 분께서 멀리 달려와 서찰과 예단을 갖춰 사숙의 글 선생으로 초빙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감히 아버님 곁을 떠나 멀리 떠돌아다니셔는 안 된다는 경계를 어길 수 없었습니다만, 부친께서는 “불초하게 할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느냐?”라고

21) 書幣: 고대 예법으로, 사람을 초빙하기 위해 보내는 서찰과 예단을 가리킨다.

22) 家嚴: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꾸짖으며 길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은 동남 해안가에 위치하여 집으로부터 천질 백 리나 떨어져 있지만, 다행히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서찰을 보내니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짐을 꾸려 고향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소음(육비)과 추루(반정균) 대형은 봄에 헤어진 후 지금까지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만, 근자에 듣자니 추루(반정균) 대형이 오월 경에 다시 북경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추루 대형이 친히 그 자세한 내막을 편지로 드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7.5 弟何人斯,²³⁾ 敢謂已能從事于古學? 湛軒所稱, 未免溢美, 所不敢當. 不過胸中稍具識見, 不牽流俗, 區區尙堪自信. 昔胡文定²⁴⁾ 論‘心遠之義, 舉上蔡²⁵⁾ 語云, “不爲嬰兒之態而有大人之器, 不爲一身之謀而有天下之志, 不爲終身之計而有後世之慮, 此之謂心遠.” 弟時時舉以自策, 然以生平畏與物忤, 漫無町畦, 受侮不少. 時復自對, 已不免于憧憧往來矣. 湛軒教我“刊落浮華, 渾化渣滓.” 此八字對症之藥, 然而大難. 昔人云, “一命爲文人, 無足觀矣.”²⁶⁾ 弟正犯此病, 蓋緣誤落塵網, 不能自脫, 卽如詩文書畫之類, 應酬紛煩, 謝絕無術, 明知作無益害有益, 而遇小得意處, 輒復沾沾自喜, 此病根何時可除? 湛軒幸痛切言之, 弟不敢昧心以欺我良友也.

【역문】

제가 뭐라고 이미 옛 학문에 종사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담헌 대형께서 하신 칭찬은 지나친 미화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감히

23) 何人斯: ‘斯’는 조사이다. 《詩經·小雅》중 <何人斯> 참조.

24) 胡文定: 송나라 理學家이자 寶文閣大學士를 역임한 胡安國(1074-1138)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康侯, 호는 靑山이고, 시호가 文定이다.

25) 上蔡: 北宋시대 理學家인 程顥의 제자 謝良佐(1050-1103)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顯道이고, 蔡州 上蔡(지금의 하남성 동남부 지역) 사람이다.

26) 청나라 顧炎武는 《顧亭林詩文集》에 수록된 <與人書·十八>에서 “《宋史》言, 劉忠肅每戒子弟曰, 士當以器識爲先, 一命爲文人, 無足觀矣.” 僕自一讀此言, 便絕應酬文字, 所以養其器識而不墮於文人也.(후략)”라고 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약간의 학식과 견해를 갖고 세속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변변치 않지만, 오히려 자신할 만합니다. 옛날 호문정(胡安國) 선생께서 ‘심원(心遠)’이라는 의미를 강론하실 적에 상채(謝良佐) 선생의 말씀을 거론하며 “어린 애의 모습도 못 갖추었으면서 큰 사람의 기량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일신의 계획도 세우지 못했으면서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뜻이 있으며, 일생의 계획도 세우지 못했으면서 후세를 걱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경계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만, 평생토록 남과 더불어 거스르고 질펀히 경계 없이 넘나들다 적잖이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따금 또 저 자신을 살펴보면 스스로 넓고 큰 학문에 두루 섭렵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헌 대형께서 “화려한 것을 떨쳐 버리고 썩꺼기를 정화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여덟 글자는 병폐에 딱 맞는 처방이라고 하겠으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전에 누가 “한번 문인으로 운명지어지면 딱히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이 병에 걸려서 세속의 나락에 떨어진 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문과 서화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 채 빈번히 응대하면서도, 정작 제가 해야 할 일에 무익하고 해가 되는 점만 늘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시 우쭐대며 좋아하게 되니, 이런 병폐의 뿌리는 언제나 없앨 수 있을까요? 담헌 대형께서 통절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감히 양심을 속인 채 친구를 기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27.6 弟衰微早見，入今年來，牙齒脫落大半，存者亦都動搖，髮雖未蒼蒼而已種種矣。較之湛軒，更有甚焉。然謂“非遠到氣象，²⁷⁾ 便生愧懼。”此不必然。君子爲學，俛焉日有孳孳，死而後已，願與湛軒勉之。吾輩稱兄弟，亦何必有故事可援？然如陶靖節詩云，“落地爲兄弟，何必骨肉親”，李白亦云，“異姓爲天倫”。²⁸⁾ 其他見于

27) 遠到氣象: ‘遠’은 나중에 크게 되다. 즉 높은 벼슬에 올라 큰일을 한다는 의미이고, ‘氣象’은 사람의 기개 또는 도량을 가리킨다.

28) 당나라 이백의 <穎陽別元丹丘之淮陽>이라는 시를 인용한 것이다.

史書者, 如北周唐謹²⁹⁾之于万紐于瑾,³⁰⁾ 此類亦多, 不能徧記. 古人以兄事以弟畜之處, 不一而足, 必謂儒林未曾有者, 卽非莊士所爲, 說亦太拘. 且吾輩行之, 卽謂始于吾輩, 亦無不可者. 疑之者, 何其不廣也. 家兄³¹⁾天機清妙, 舊聞弟所稱述, 又見諸尺牘及弟所圖諸公小像, 并筭記問答諸語, 久深欽慕. 忽蒙惠書, 喜出非望, 湛軒又何嫌何疑, 而慮其見訝哉?³²⁾ 兒子年甫十一, 資質尙非庸鈍, 然初學作文, 無可觀者. 過承長者垂念, 感極感極! 弟前在京邸所作詩文, 皆于人事紛襍之頃, 艸率應命, 湛軒當爲藏拙, 而乃令貴鄉士友齒冷, 非所望也.

【역문】

저는 일찌감치 늙어가는 징조가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치아가 대부분 빠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모두 흔들립니다. 모발이 비록 하얗게 세지는 않았지만 벌써 듚성듬성해졌습니다. 담헌 대형에 비교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일을 할 기상이 아니어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자는 학문하면서 부지런히 날마다 힘쓰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둘 뿐입니다. 담헌 대형과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데, 왜 꼭 인용할 만한 고사가 있어야 합니까? 그러냐 예컨대 도정절(도연명) 선생은 그의 시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형제가 되었으

29) 唐謹: 北周 시대에 小宗伯이라는 관직을 올랐던 唐瑾(생존년 미상)의 이름 ‘瑾’을 ‘謹’으로 誤記한 것이다. 北周에 앞서 세워졌던 西魏의 燕國公 于謹(생존년 미상)이 唐瑾의 학문과 품성을 흠모하여 同姓이 되어 형제의 인연을 맺고자 간청함에 당시의 승상이었던 宇文泰가 두 사람 모두에게 万紐于氏라는 復姓을 하사했던 일화가 전한다. 《北史》에 수록된 <唐瑾傳> 참조.

30) 万紐于瑾: 万紐于瑾의 이름 ‘謹’을 ‘瑾’으로 誤記한 것이다.

31) 家兄: 엄성의 친형인 嚴果를 가리킨다. 嚴果(1723-1780)는 청 절강 錢塘 사람으로, 字는 敏中, 호는 九峰 또는 古緣이다. 乾隆 35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산수화를 잘 그렸고, 행서와 예서에도 능했다고 전한다.

32) 洪대용이 앞서 보낸 편지에서 엄성의 형에게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로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혹여 예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까 걱정된다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엄성이 바로 이에 대해 응답한 것이다. 《洪湛軒尺牘》의 24번째 서찰의 마지막 부분에는 “容之懷風景仰, 非徒于爲力聞之伯氏而已. 乃敬修寸楮, 畧佈鄙悃, 兼以求教. 未見而有書, 筱飲兄事例在焉, 能不以見訝否?”라고 적고 있다. (拙稿,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原文 및 校譯(III)>, 《중국학논총》 68집, 2020, 308-309면 참조)

니, 어찌 반드시 골육끼리만 친할까?”라고 했고, 이백은 또한 “이성(異姓)이 천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북주(北周) 시대의 당근(唐瑾)과 만유우근(萬紆于瑾) 두 사람의 벗 사귄 같은 사례는 많아서 모두 적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옛사람들이 형으로 섬기고 아우로 아껴주었던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도, 유럽 사이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들로 고상한 선비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 말 또한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교우했으니,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벗 사귄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은 어찌 그토록 마음이 넓지 못합니까? 제 형님(嚴果)은 타고난 성품이 맑고 섬세하십니다. 예전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들어왔고, 여러 서찰, 제가 그린 대형들의 초상화, 그리고 적어놓은 여러 문답도 보신 터라 오랫동안 깊이 흠모해 오셨습니다. 홀연 편지를 받고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는데, 담헌 대형께서는 또 무엇을 꺼리시어 제 형님이 의아해할까 걱정하십니까? 아들은 이제 11살로 자질이 어리석거나 우둔하지는 않지만, 이제 막 글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어놓은 시문 가운데 불만한 것이 없습니다. 과분하게 어른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북경에서 지은 시문들은 모두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좇아 대강 지었던 것이니, 담헌 대형께서는 그 졸렬한 시문을 감춰 두셔야 할 것입니다. 고향 벗들한테 조롱받는 것은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니니까요.

2.27.7 湛軒與弟, 皆年近四十, 進德修業, 宜在此時. 弟以爲且先理會變化氣質, 弟亦知聖賢可學而至, 而本性通脫, 近于古之狂者,³³⁾ 語言苦于率易,³⁴⁾ 殊少厚重氣象, 大是可憂. 湛軒性情, 無可議者. 其所見似稍涉拘泥聖人之道, 下學上達之方,³⁵⁾ 其行在孝弟·忠信, 其職在灑掃·應對·進退, 其文在《詩》·《書》·《三禮》·《周易》·《春秋》, 其用之身在出處·辭受·取與, 其施之天下在政

33) 古之狂者: 老佛 사상 또는 心學을 주장하는 학파를 가리킨다.

34) 率易: 몸가짐이나 언행이 솔직함.

35) 下學上達: 아래로 사람의 일을 배우고, 위로 하늘의 이치를 터득한다. 《論語》의 <憲問>에 수록된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참조.

令·教化·刑法, 其所著之書皆移風易俗, 以馴致乎治平之用, 而無益者不談, 其于世儒盡性致命之說, 必歸之有物有則³⁶⁾·五行五事之常,³⁷⁾ 而不入于空虛之論, 如是而已矣.

【역문】

담헌 대형과 저는 모두 나이가 거의 사십이 되었으니, 덕행을 실천하고 학업을 연마하는 것도 마땅히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기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성현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겠지만, 본성이 소탈하여 옛사람들의 자유분방한 술수에 가까이하고, 쓰는 말은 애써 솔직하고 평이하게 하고자 하며, 특히나 두텁고 묵직한 모습이 없다는 것도 알기에 매우 걱정입니다. 담헌 대형의 성정은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식견은 성인의 도, 아래로 사람의 일을 배우고 위로 하늘의 이치를 터득한다는 ‘하학상달(下學上達)’의 가르침 등에 구애받는 수준을 조금 넘으신 듯합니다. ‘효제충신(孝弟忠信)’의 도리 안에서 행동합니다. 물 뿌리고 먼지를 쓸어내는 일상적인 일, 사람들과의 응대,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에 자신의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 《시경》, 《서경》, 《삼례》, 《주역》, 《춘추》의 책 안에서 학문을 합니다. 일상적인 일, 사양하고 받아들이는 일, 취하고 주는 일에 자기 몸을 씁니다. 정령, 교화, 형법의 범주 안에서 그것을 천하에 펼칩니다. 풍속을 교화하여 세상을 다스리는데 책을 저술하시고, 무익한 것에 대해서는 답론하지 않습니다. 세간 유림의 ‘성품을 다하여 천명에 이른다(盡性致命)’라는 학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는 ‘유물유칙(有物有則)’, 오행(五行)과 오사(五事)의 원리로 귀결시켜 공허한 논리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대략 이와 같을 뿐입니다.

www.kci.go.kr

36) 有物有則: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37) 五行五事: ‘五行’은 ‘水·火·木·金·土’를, ‘五事’는 ‘貌·言·視·聽·思’를 가리킨다.

2.27.8 湛軒學詞章·記誦·訓詁之事,皆以爲害道,弟不能無疑.程子³⁸⁾嘗言有詞章之學,訓詁之學,窮理之學.詞章則誠廢矣,讀書豈能舍記誦?而訓詁二字則經學之復明,漢儒訓詁之功尤偉,皆不可以厚非,牽于訓詁則不可耳.卽以朱子命世大儒,何事不經?其鑽研閱歷,蓋涵養在主敬,進學必在致知,德性在是,問學在是,舍訓詁而遽空言義理,何以爲致知之本?孔子以生知之聖,猶曰“好古敏求”,³⁹⁾曰“多聞多見”,⁴⁰⁾豈皆支離者邪?楊子云,⁴¹⁾“多聞則守之以約,多見則守之以卓.少聞則無約也,少見則無卓也.”⁴²⁾此其語有所自來,未可以其出于子雲⁴³⁾而廢之也.明人發策謂,“今之人不學,則借一貫以文其陋,無行則逃之性命之鄉,以使人不可詰.”⁴⁴⁾此雖指爲王氏⁴⁵⁾之學者,亦曲盡當日空疎講學者情事.

【역문】

담헌 대형께서 ‘사장(詞章)’, ‘기송(記誦)’, ‘훈고(訓詁)’의 사항을 들어 모두 유가의 도를 해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데, 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송시대 정자는 일찍이 ‘사장학’, ‘훈고학’, ‘궁리(窮理)학’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나 시부를 연구하는 풍토가 정말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글

38) 程子: 북송시대의 理學家인 程頤(1033-1107)를 가리킨다. 程顥·程頤의 《二程遺書》 권 18 <伊川先生語·四>에는 “古之學者有一, 今之學者有三, 異端不與焉. 一曰詞章之學也, 二曰訓詁之學, 三曰儒者之學. 欲趨道, 舍儒者之學不可.”(상해고적출판사, 2000, 235면) 참조.

39) 《論語·述而》의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 敏以求之者也.’” 참조.

40) 《論語·爲政》의 “子曰, ‘多聞闕疑, 慎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慎行其餘, 則寡悔. 言寡尤, 行寡悔, 祿在其中矣.’” 참조.

41) 楊子: 西漢시대의 철학가이자 문학가인 揚雄(BC53-18)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子雲이고, 일명 楊雄으로 불리기도 한다. 蜀郡 成都(지금의 四川 成都) 사람이다.

42) 揚雄의 《法言·吾子》 참고.

43) 子雲: 주42 참조.

44) 명나라 문학가이자 사학가인 王世貞(1526-1590)이 양명학을 추종하는 자들을 비판하여 한 말이다. 청나라 顧炎武의 《日知錄集釋》 권18 <朱子晚年定論>의 “嘉靖以後, 從王氏而詆朱子者, 始接踵於人間. 而王尙書(世貞)發策謂, 今之學者偶有所窺, 則欲盡發先儒之說而出其上. 不學則借一貫之言以文其陋, 無行則逃之性命之鄉, 以使人不可詰.” 참조.

45) 王氏: 명나라 心學을 집대성한 사상가인 王守仁(1472-1529)을 가리킨다. 그는 명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교육사상가로서, 양명학의 창시하고 심학(心學)의 집대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자는 伯安, 호는 陽明이고, 시호는 文成이다.

을 읽는데 암기와 암송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훈고’ 두 글자는 바로 경학의 부흥을 말하는 것으로, 한나라 유가들이 훈고를 통해 끼친 공로가 매우 컸기 때문에 함부로 전부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훈고하는 것에 얽매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주자는 한 시대에 이름 높은 큰 유가 학자로서, 경전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거론한 것이 있었습니까? 세심하게 규명하고 탐구했으니, 인성을 함양함에서는 ‘경(敬)’의 사상에 주력하였고, 배움에 나아감에서는 반드시 사물의 도리를 알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치지(致知)’의 이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덕성과 학문에 있어서는 진실을 찾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훈고의 태도를 버리고 근거 없이 공허하게 의리(義理)를 말씀하셨다면, 어찌 ‘치지’의 근본을 이루실 수 있었겠습니까? 공자는 배우지 않고도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던 성인이었는데도 오히려 옛것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구한다는 ‘호고민구’, 많이 듣고 많이 관찰한다는 ‘다문다견’을 말씀하셨으니, 어찌 전부 다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이겠습니까? 한나라 양웅은 “많이 듣고 난 뒤에는 핵심으로써 들었던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많이 보고 난 뒤 탁월한 식견으로써 보았던 많은 것들을 관찰해야 한다. 많이 듣지 않으면 핵심을 간추릴 수 없고, 많이 보지 않으면 탁월한 식견도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유래가 있었던 것으로, 자운(子雲, 揚雄)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명나라 사람(王世貞)은 과거 시험의 문제를 내어, “지금 사람들은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도 한 께미의 말을 빌려 그 비루한 학식을 화려하게 만들고,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성명(性命) 학술의 고향으로 도망쳐 남들이 힐문조차 할 수 없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비록 왕양명의 학술을 가리킨 것이지만, 또한 당시 공허하게 학문을 가르치는 정황을 곡진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2.27.9 今湛軒有得于宋儒緒言,⁴⁶⁾ 知安身立命之有在, 則固善矣. 但吾輩胸中不可先橫渠⁴⁷⁾道學二字, 而思于古人中分一坐席. 前代諸史祇有儒林文苑二門, 至

46) 緒言: ‘緒’는 ‘絮’와 같은 의미이다. ‘緒言’은 역대로 전해지는 많은 학설을 뜻한다.

《宋史》別列道學名目，貽譏識者。夫儒之名，至尊矣。而此外又有所謂道學之名，何爲者也？

【역문】

이제 답헌은 송대 유학자들의 실마리 되는 언급 속에서 체득한 바가 있어, “자신의 몸을 평안히 하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뜻을 세운다.”라는 가르침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우리는 가슴 속으로 횡거(橫渠) 선생의 ‘도학(道學)’ 두 글자를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옛사람들 사이에서 한 자리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대의 여러 역사서에는 ‘유림(儒林)’과 ‘문원(文苑)’의 두 분류만 있었는데, 《송사》에 이르러 ‘도학’이라는 항목을 따로 열거하여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무릇 ‘유(儒)’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존귀한 것이거늘 이외에 ‘도학’이라 하는 이름이 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27.10 王文成⁴⁸⁾倡其新說，貽誤後人，誠爲可恨。然則事功自卓絕千古，今則道德一風俗⁴⁹⁾同之盛世，姚江⁵⁰⁾之餘焰已熄，久無異言橫決之患。吾輩爲賢者諱，正不必時借以爲彈射之資，如北宋富弼⁵¹⁾・南宋李綱⁵²⁾晚年皆篤信佛氏，安得以

47) 橫渠: 北宋시대 理學의 창시자이자 關學의 창시자인 張載(1020-1077)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子厚, 호는 橫渠이고, 橫渠先生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필사본 《鐵橋全集》에는 ‘橫著’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誤記된 것으로 보인다.(劉婧, 《日下題襟集》, 上海古籍出版社, 2014, 131·429면 참조.)

48) 王文成: 명나라 심학 사상가 王守仁을 가리킨다. 주45 참조.

49) 風俗: ‘風’은 나라의 정세, ‘俗’은 백성의 민심을 가리킨다.

50) 姚江: 명나라 心學의 창시자 王守仁의 고향이 姚江(지금의 절강성 寧波)인데서 유래한 말로,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을 가리켜 ‘姚江學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51) 富弼(1004-1083): 북송시대의 재상. 그의 자는 彥國이고, 河南 洛陽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범중엄과 더불어 ‘慶歷新政’을 추진하였고, 재상에 오른 뒤에는 왕안석의 ‘變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富鄭公集》 1권이 전한다.

52) 李綱(1083-1140): 남송시대의 재상. 그의 자는 伯紀, 호는 梁溪, 常州 無錫 사람이다. 靖康 元年(1126)에 금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京城四壁守御使가 되어 이를 격퇴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다. 시호는 忠定이다. 저서로는 《梁溪先生文集》, 《靖康傳信錄》, 《梁溪詞》 등이 전한다.

此而遂掩其爲一代偉人? 正恐講道學先生未必有此軒天揭地手段也. 弟此時已不爲異學所惑, 豈故爲兩歧之論? 良欲湛軒于知人論世之際, 少破其拘泥之見耳. 又有說者以朱子之風力欲攻韓侂胄,⁵³⁾ 乃筮得遯卦而止. 夫《易》以前民用也, 非以爲人前知也. 求前知, 非聖人之道也. 故《少儀》之訓曰“毋測未至”. 弟前于《靈龜》⁵⁴⁾一詩, 發其狂談, 亦此是也. “明哲保身”四字, 最易爲庸鄙者藏身藉口. 馮道⁵⁵⁾事四朝十主, 廉耻道喪, 千古無雙, 而先儒或有許其救世之功者, 此豈可不嚴其辨哉? 老莊皆天資超絕, 度其人, 非無意于世者. 不幸生衰季, 而發爲汗漫⁵⁶⁾無稽之言, 大半憤時嫉俗, 有激云然耳. 彼豈不知治天下之需仁義禮樂哉? 蒿目傷心⁵⁷⁾之至, 一則慨然有慕于結繩以前之治, 一則一死生齊物我, 而又立言詭異, 其流遂至于申韓⁵⁸⁾之慘刻,⁵⁹⁾ 王何⁶⁰⁾之清談, 所以爲異端首禍之人. 然二千餘年來, 排之者亦不一人, 而其書終存, 其書存而亦無關於天下之治亂. 盖自有天地以來, 自有此一種議論, 索隱行怪, 聖人早已知之. 方今聖學昌明, 吾輩直視爲姑妄言之之書, 存而不論可耳. 必取其憤激駭聽之言, 嘵嘵焉逞其擊斷, 何補于治? 而老莊有知, 轉暗笑于地下矣. 此是講學習氣, 人云亦云, 落此窠臼,⁶¹⁾ 最爲可厭. 吾輩且

53) 韓侂胄(1152-1207): 그의 자는 節夫, 相州 安陽(지금의 하남성 안양시) 사람이다. 魏郡王 韓琦의 曾孫이자, 寶寧軍承宣使 韓誠의 아들로 남송 시대에 太師, 平章軍國事를 거쳐 재상에 오른 사상가이다. 慶元 2年(1196)에 당시의 재상이었던 留正과 당쟁을 벌이던 중 주회를 ‘十大罪’로 탄핵한 바 있다. (《宋史·韓侂胄傳》 참조)

54) 엄성이 쓴 <附鐵橋愛吾廬八詠>라는 서찰 중 7번째 시에 해당하는 <靈龜占蓍>를 가리킨다. 그는 이 시에서 “靈龜有何靈, 以問乞靈者. 吉凶論是非, 趨避敢苟且. 居易以俟命, 枯草行可捨.”라고 적었다. 이 시는 홍대용의 문집인 《湛軒書外集·附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55) 馮道(882-954): 자는 可道, 호는 長樂老이고, 瀛州 景城(지금의 하북성 滄州 서북지역) 사람이다. 燕王 劉守光을 시작으로 後唐(莊宗, 明宗, 閔帝, 末帝), 後晉(高祖, 出帝), 後漢(高祖, 隱帝), 後周(太祖, 世宗) 등 네 개의 조정에서 총 10명의 황제를 보필한 정치가이자, 後周 廣順 3년(953) 《九經》을 간행한 학자이다. 그가 여러 조정에서 재상을 역임한 것에 대해 북송 시대에 歐陽修는 그를 가리켜 “無廉耻者”라고 하였고, 司馬光은 “奸臣之尤”라고 비평한 바 있다. (《新五代史·雜傳第四十二》, 《資治通鑒·後周紀二》 참조)

56) 汗漫: 공허하다, 허황하다.

57) 蒿目傷心: ‘蒿目’은 본래 멀리 바라본다는 의미로, ‘蒿目傷心’은 뜻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위태로운 세대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가리킨다.

58) 申韓: 戰國시대에 법가 사상을 주장했던 鄭나라 申不害(BC385-BC337)와 韓나라 韓非(BC280-BC233)를 가리킨다.

59) 慘刻: 사납고 독하다. 申不害와 韓非가 주장한 잔인하고 각박한 법치사상을 가리킨다.

60) 王何: 魏晉시대에 玄學을 창시한 사상가인 王弼(226-249)과 何晏(?-249) 두 사람을 가리킨다.

濱⁶²⁾照管自己身心, 若扶正學, 息邪說, 正人心, 雖有其責任, 恐尙無其本領, 以此自負, 近于大言欺世, 弟不敢也.

【역문】

왕문성(왕양명)이 그의 새로운 학설을 주창하여 후세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갔으니,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낸 공적은 천고에 길이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도(道)와 덕(德)이 하나가 되고 풍(風)과 속(俗)이 하나가 된 번영된 시대로서, 요강(姚江) 학파의 남은 불씨도 이미 꺼져버려 이단 학설이 범람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옛 현자(賢者)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지 시시콜콜 빌려다 지적할 구실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북송의 부필과 남송의 이강은 만년에 모두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다지만, 어찌 이런 이유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도학을 강론하시는 선생들에게는 하늘에 닿고 땅을 뒤흔들만한 이런 수단이 미처 없었던 듯합니다. 저는 지금 이단 학설에 빠지지 않았으면서, 어찌 일부러 두 갈래의 엇갈린 주장을 하겠습니까? 진실로 담헌 대형께서 사람들의 학설을 이해하고 세태를 의논하실 때, 조금이나마 그 엄매인 선입견을 타파하게 하고자 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자 학설의 거센 위력으로 한이주를 공격하려다가 점을 쳐서 둔괘가 나오자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주역》은 이전에 민간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의(少儀)> 편에서는 “아직 이르지도 않은 것을 추측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감(靈龜)> 시에서 그 경망한 담론을 꺼냈던 것도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명철한 도리로 제 몸을 잘 보전한다는 ‘명철보신’ 네 글자는 어리석고

61) 窠臼: 둥지와 절구. 여기에서는 옛 묵은 방식에 젖어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62) 濱: '須'의 통용자이다.

비루한 사람들이 몸을 숨기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기 가장 쉽습니다. 풍도(馮道)라는 사람은 네 왕조를 겪으며 열 분의 군주를 섬기었는데, 파렴치함이 천고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 유가 중에는 간혹 그가 세상을 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찌 엄정히 변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자와 장자는 모두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고, 그 인물됨됨이를 헤아려보면 세상에 뜻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쇠퇴해가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그 대부분을 세상에 격분하고 사회 풍속을 안타깝게 여겨 격하게 말했던 것뿐입니다. 저들인들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인(仁), 의(義), 예(禮), 악(樂)'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세상을 크게 걱정하며 한편으로 상고(上古) 시기 이전에 나라가 태평하게 다스려졌던 것을 흠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삶과 죽음, 사물과 자아를 하나로 보는 괴이한 학설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파가 마침내 신불해(申不害)와 한비(韓非)가 주장한 잔인한 법치의 학설, 왕필(王弼)과 하안(何晏)이 주장한 청담(淸談)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그들이 이단 학설의 첫 번째 화근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전 년이 넘는 동안 그들을 배척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글은 끝까지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글이 남아 전해졌다고 해도 천하의 난리를 다스리는 것과는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천지가 생겨난 뒤로 자연히 이와 같은 의론이 생겨났고, 궁벽한 이치를 찾아내고 괴이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께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성인의 학문이 크게 일어났으니, 우리는 성인의 가르침을 경망하게 함부로 말하는 글들이 전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런 학설이 있다 해도 논의하지 않으면 될 따름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듣고 격분할 만한 말들을 가져다 그 학설을 부단히 논박해 간다면, 학문하는 데 어떤 도움이 있겠습니까? 노자와 장자에게 혼령이 있다면, 돌아앉아 슬그머니 지하세계에서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문을 할 때 배어있던 습관으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옛 방식에 젖어있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 올바른 학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릇된 학설을 막아내어 마음을 바르게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런 책임감은 있습니다만 스스로 짊어질 능력이 없는 것이 두려워, 큰소리로 세상을 기만하는 일에 가까이하는 것을 저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2.27.11 <發難>兩條,⁶³⁾ 極欲吐其胸中之見, 計所書又須⁶⁴⁾千言, 封函太厚, 難寄, 姑俟後信. 亦欲攜歸, 與筱飲⁶⁵⁾共觀而後論定也. 弟病瘡兩月有餘, 今尙未痊, 每日寒熱交作, 執筆手顫. 雖累累長幅, 而所懷猶未盡萬一. 天各一方, 惟有慟哭. 冀爲道自愛. 不宣.

【역문】

<발난(發難)>의 두 조목에 대해 제 마음속의 견해를 모두 토로하려고 하니, 쓰려는 말이 또 천 마디입니다. 편지가 너무 두꺼워서 보내기 어려우니 잠시 다음 편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가지고 돌아가 소음(육비) 대형과 함께 살펴 본 후 논의하여 끝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학질을 앓은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나아지지 않은 채 매일 춥고 열나기가 반복되고 있어서 붓 잡은 손이 떨립니다. 비록 누누이 편폭이 길어졌습니다만 생각한 것들을 만분의 일도 다 적지 못했습니다. 저 하늘 양편에 떨어져 있음에 서글피웁니다. 학문하시는 중에도 자중자에 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63) 《洪湛軒尺牘》의 25번째 서찰인 <又發難二條>에서 업성은 유가들이 불교나 도가 사상에 심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업적을 남겼던 일을 언급한 적이 있다. (拙稿,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原文 및 校譯(III)>, 《중국학논총》 68집, 2020, 309-312면 참조)

64) 須: '須'의 통용자이다.

65) 筱飲: 건륭 31년(1766) 2월 북경 건정동에서 홍대용과 교우했던 '三學士' 중 한 명인 陸飛를 가리킨다. 그의 자는 起潛, 호는 筱飲, 仁和(지금의 절강성 항주) 사람이다. 저서로 《筱飲齋稿》가 전한다.

2.28 < 書後附寄懷詩二首 >66)

2.28.1 京國⁶⁷⁾傳芳訊, 遙遙大海東. 斯文吾輩在, 異域此心同. 情已如兄弟, 交眞善始終. 相思不相見, 慟哭向秋風.

【역문】

연경에서 전해 받은 반가운 편지
 머나먼 해동에서 보내온 것인데
 우리에게 이 편지가 있으니
 이역만리 헤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리
 그리운 정은 이미 형제와 같고
 벗 사귀는 진실로 시종 한결같건만
 그리워도 만날 수 없으니
 가을바람 향해 서러워 운다오

2.28.2 見面悲無日, 論心喜有書. 來從萬里外, 到及一年餘. 激勵煩良友, 衰遲感獨居. 無聞將四十, 忍使寸陰虛.

【역문】

얼굴 볼 날 기약 없어 서글퍼하다
 그 마음 적은 편지 있어 기쁘다만
 만 리 밖에서 보낸 것이
 일여 년 만에 도착하였구려

66) 이 시는 《湛軒書外集》卷一의 <與秋庫書>에 <鐵橋臨終前一日寄詩>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67) 京國: 수도. 여기에서는 북경을 가리킨다.

격려한다는 것이 좋은 벗을 귀찮게 하고
 늙고 둔해진다는 생각에 홀로 지낸다만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한 채 마흔 나이 되려하니
 차마 잠시라도 헛되게 보낼순가

2.29 < 又附與秋厓書 >

夏間曾有數行聞訊，不知足下已復入都，遂致相左。別逾三季，相思良苦。京
 雒⁶⁸之遊，想非無謂，殊深快頌。比接年伯⁶⁹大人信，寄到海東書數封。湛軒累累
 數千言，大率勉以聖賢安身立命之學，僕得之如獲異寶。不審與足下書云何，將來當
 索觀也。僕羈栖閩嶠⁷⁰，業不增舊，形如槁木，心若死灰。陶公有言，“造夕思雞鳴，
 及晨願烏遷”，⁷¹僕之所遭，實同斯境。視鮮衣怒馬馳騁于長安陌上者，真有春林秋
 棘之別矣。答東友書納上，煩于歲終彙寄。封面題署字樣，想不遺忘也。足下或尚留
 京師，亦當仍交徐朗兄⁷²處，勿更與後來使臣相聞，⁷³非惟省事，佳遇政不必再也。
 迂陋之見，仰惟照察。肅此 布候近安。不一。

【역문】

여름에 몇 줄의 소식을 접했으나, 대형께서 벌써 다시 북경으로 올라가신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벌써 서로 이별한 후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음에 보
 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북경에서의 여정이 매우 즐거우셨으리라 여겨집니

68) 京雒: 경성, 수도. 여기에서는 북경을 가리킨다.

69) 年伯: 같은 해에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끼리 서로의 부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편지의
 내용상 潘其祥은 항주에 살고 있던 潘庭筠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70) 閩嶠: 복건성 경계 내에 산이 많아 붙여진 복건성에 대한 별칭이다.

71) 陶公은 東晉시대의 시인 陶淵明을 가리킨다. 이 시구는 그의 <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
 에서 따온 것이다.

72) 徐朗兄: 주6 참조.

73) 相聞: 소식을 주고받다.

다. 연이어 아버님의 서찰을 받고, 해동으로 여러 통의 서찰을 보냈습니다. 담 현이 누차 하신 수천 마디의 말씀은 대략 성현의 안신 입명하는 학문을 닦는데 힘쓰라는 것이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치 희귀한 보배를 구한 듯 기뻐했습니다. 대형께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민교 땅에서 타관살이하면서 학업은 예전보다도 진전되지 않아, 몸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지고 마음은 사그라진 재처럼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도연명은 “저녁에는 닭이 우는 것을 생각하고, 새벽에는 새가 올라앉기를 바라네.”라고 했는데, 제가 처한 상황이 실로 이러한 지경과 같습니다. 고운 옷 입고 날쌔 말 타고 장안 거리를 누비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봄날의 생동감 넘친 숲과 가을날의 앙상한 가지덤불 사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동 벗의 서찰에 대한 답신을 보내드리니, 번거롭겠지만 연말에 한테 묶어 보내주십시오. 편지 봉투에 쓰신 글씨 매무새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께서 혹시 아직 연경에 머물고 계신다면, 마땅히 서낭형(徐朗兄, 徐光庭)이 있는 곳으로 서찰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올 사신들과 더 이상은 소식을 주고받지 마세요. 일을 덜고자 할 뿐 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매하고 고루한 생각들을 두루 살피주십시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2.30 < 又附與潘其祥⁷⁴)年伯書 >

教範⁷⁵)暌違, 倏逾三季. 邇想道體康寧, 闔潭多慶, 可勝額頌. 閏月⁷⁶)間接手教, 蒙轉頌海東諸札, 謝謝! 大哥入都, 想多得意, 甚念甚念. 來書一函. 煩附入府報⁷⁷), 卽寄京師, 是所切禱. 肅此 恭候近禧, 臨風神溯.

74) 潘其祥: 각주69 참조.

75) 教範: 문언문 편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상대방의 가르침을 뜻한다.

76) 閏月: 윤달. 여기에서는 1767년 윤칠월을 가리킨다.

77) 府報: 다른 사람의 서신을 높여 부르는 말.

【역문】

가르침 받고 못 빈 지 어느덧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근자에 건강하시고 댁내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시니 감축 드립니다. 윤달에 손수 쓰신 서찰과 해동에서 보내온 서찰들을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반정균)이 북경으로 들어갔다는데, 뜻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매우 그립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편지 한 통을 다른 분들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사이에 끼워 넣어 북경으로 부쳐 주셨으면 합니다. 삼가 줄입니다. 조만간 기쁜 소식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바람결에 지난날의 모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 參考文獻 >

- (清)羅以智 再抄, (朝鮮)洪大容·(清)嚴誠·(清)陸飛 撰, 《日下題襟合集》, 北京대학 소장본
- (清)梁詩正, 沈德潛 合纂, 《西湖志纂》, 臺北, 文海출판사, 1971.
- (朝鮮)金元行 撰, 《漢湖集》, 《韓國文集叢刊》 220책, 民族文化推進黨, 1998.
- (朝鮮)金昌翁 撰, 《三淵集》, 《韓國文集叢刊》 165-167책, 民族文化推進黨, 1996.
- (朝鮮)李德懋 撰,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259책, 民族文化推進黨, 2000.
- (朝鮮)洪大容 지음, 김태준·박성준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 (朝鮮)洪大容 지음, 조규익·장경남·최인환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 (朝鮮)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248책, 民族文化推進黨, 2000.
- 編者 未詳, 《燕杭詩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1933.
- 김태준 編, 《乙丙燕行錄(영인해설)》,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 劉婧, <18世紀中韓文人交流詩文集《日下題襟合集》與《日下題襟集》的傳抄本>, 《溫州大學學報》 29輯, 2016.
- 劉婧, 《日下題襟集》, 上海古籍出版社, 2014.
- 박현규, <朝鮮·清朝人의 燕京 交遊集-《日下題襟合集》의 발굴과 소개>, 《韓國漢文學

研究》 23집, 1999.

박현규, <《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 《韓國漢文學研究》 47집, 2011.

拙稿, <《中朝學士書翰》의 자료 가치에 대한 管見>, 《중국어문논총》 42집, 2009.

拙稿, <《中朝學士書翰》脫草 원문 및 校釋>, 《중국어문논총》 41집, 2009.

拙稿, <북경대학 소장본 《洪湛軒尺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5집, 2010.

허경진·천금매, <홍대용 집안에서 편집한 《燕杭詩牘》>, 《洌上古典研究會》 27집, 2008.

< Abstract >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in Peking University: Its Deciphered Text and Annotated Translation(IV)

Kang, Chansoo

This is the fourth paper in a series of research courses that examine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kept in the Rare Books Collection of Peking university library, comparing four letters—from the 27th to the 30th letter—with the domestic literary collection and translating it back into Korean.

The 27th letter written by Qing Dynasty's scholars, Yan Cheng(嚴誠) in the fall of 1767 contain a number of sentences that reveal his academic attitude and thought, while writing down his longing for Chosun Dynasty's envoy, Hong Dae-yong plaintively. The 28rd letter is two poems in which Yan Cheng implicitly wrote his feelings of missing of his friend, Hong Dae-yong. The 29th letter is a letter from Yan Cheng to Pan Ting-yun(潘庭筠),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second lunar month of 1766 and was living in Beijing. In the letter, Yan Cheng asked Pan Ting-yun to leave his letter to Pan's cousin, Xu Guang-ting(徐光庭). The 30th letter is a letter from Yan Cheng to Pan Qi-xiang(潘其祥), the father of Pan Ting-yun, in the fall of 1767. In this letter,

Yan Cheng asked Pan Qi-xiang to send his letter to Beijing.

Through a study of these four letters, I translate these letters in classical Chinese into Korean and investigate the correct meaning and the inside story of the four letters.

Key words: *HongDamHeon Cheokdok*, *Ilha Jegeum Habjip*, *DamHeonSeo*, Hong Daeyong, Yan Cheng, envo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1 -08. 23	2020. 08. 13	2020. 09. 01	2020. 09. 30